

# 커뮤니티케어와 간호의 역할 모색

## 간협, 일본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전문가와 간담회를 8월 24일 오전에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홋타 사토코 게이오대 대학원 건강메니지먼트 연구교수 겸 연구교수가 초청됐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및 산하단체 임원, 지역사회 간호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홋타 사토코 교수는 "일본에서는 방문간호가 1991년 제도화되었으며, 개호보험법이 2000년 도입됐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방문간호스테이션, 데이케어, 단기입소시설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간호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방문간호와 개호를 일체형 또는 연계형으로 제공함으로써 24시간 대상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서비스가 등장했다"면서 "고령자 중심에서 벗어나 질환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를 비롯해 모든 연령의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전문가인 홋타 사토코 교수가 초청됐다.

명했다. 생활보건의료, 간호소규모 다기능형 재가개호, 메그즈 암치료지원센터 등에 대해 소개했다.

홋타 사토코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주민들이 정든 곳에서 계속 살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연에 이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오후에는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일본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이명수, 김상희, 윤종필, 장정숙, 윤소하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홋타 사토코 교수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 지역공생사회' 주제로,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및 간호의 역할' 주제로 발표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간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오세정 바른미래당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3인 선출

서영교 - 김한표 - 오세정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3인이 선출됐다. 교육위원회는 8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각각 여야 3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교육위원회가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됐다. 이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7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선출됐으며,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이번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됐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평택건세기 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정금주)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대구파티마 병원 간호부(간호부장 권용숙)에서 참여했다.

## '대한법의간호학회' 창립 발기인대회 열려

대한법의간호학회가 오는 9월 8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한다. 이에 앞서 창립 준비를 위한 발기인대회가 8월 25일 열렸다.

학회는 법의간호학의 학술적 발전과 정보교류, 법의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화를 위해 창립된다. 창립준비위원장은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장인 박만주 교수가 맡았다.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는 법과학과 법의학을 바탕으로 한 법의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다. 외상, 사망, 폭력, 재해, 범죄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체검사하고 증거수집을 하는 등 전문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의 법적권리를 돕는다.

현재 78명의 법의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가정폭

력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 경찰청(과학수사요원, 검서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정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에서 법의간호학과 석사과정을 통해 법의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 대한수사과학회에서 주관하는 법의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동안 경북대 법의간호학과 교수진과 법의간호사들은 대한수사과학회 산하 '법의간호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번에 대한법의간호학회를 창립하게 됐다. 창립총회는 9월 8일 오후 2시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1면서 계속>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및 간호의 역할' 주제로 강연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며, 2030~2038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병원 및 복지시설 중심의 케어 시스템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가정)에서 연속적·통합적으로 진료, 간호, 재활, 요양, 복지,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선 지역사회 내 충분한 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하며,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볼 때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사들이 광범위하게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돌봄 목표를 평가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함에 있어 간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협의체가 채택한 선언문이 커뮤니티케어가 나아갈 방향을 잘 담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강연에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박남희 인제대 간호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해 간호계는 현재 갖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타 영역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자 보건진료소장회장은 "전국에 모세혈관처럼 분포돼 있는 보건진료소는 지난 35년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는 바를 수행해왔으며, 현재 1904개가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과 복지사업을 연계함에 있어 간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의 틀을 논의할 때 간호협회의 시·군·구 분회와 협력하고, 정부는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정현 부산시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장은 "부산시가 운영 중인 마을건강돌봄센터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소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외된 마을 주민의 건강을 지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지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